



“세계와 함께하는 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창립 50주년 국제학술대회 성료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지난 11월 17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새로운 반세기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성형외과학회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학술대회에는 국내 참가자 1198명, 해외참가자 252명 등 총 1450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학술대회에서 200여개의 연제로 발표와 논의를 진행했으며 학회기간 중에는 일본 성형외과학회와의 MOU체결 및 미국 성형외과학회와의 국제 교류 및 협력 방안을 결정하는 회의가 이어졌다.

심폐소생술 및 진정마취 연수 프로그램은 최근 화두인 환자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학술대회 기간 중에 진행됐다.

학회 관계자는 “대한성형외과학회가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동시에 명실 상부한 세계를 주도하는 성형외과 학회로서의 위상을 쌓게 됐다”며 “학술적인 교류 외에도 학회간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성형외과학회는 1966년 발족돼 현재 2215명의 전문의 회원과 337명의 전공의 준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1월 20일 대한성형외과 평위원회에서는 제26대 대한성형외과학회 임원진이 최종 승인돼 새로운 성형외과 이사회가 시작됐다.

새 회장에는 박승하 교수(고대의대), 새 이사장에는 유대현 교수(연세의대)가 취임했다. 임기는 회장 1년, 이사장은 2년이다.

대한성형외과 이사회에서는 법제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연구교육위원회 등을 신설했다. 현 미용성형수술 부작용사례의 70% 이상이 비전문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대국민 홍보를 통한 성형외과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성형외과학회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 및 매뉴얼 숙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선 기자/MP저널